



Global Market Report 14-045

2014.12.05

# 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요 약

---

## I. TPP 협상 동향 / 01

---

- 01 | 1. TPP 개요 및 동향
- 04 | 2. TPP 협정 주요 내용
- 06 | 3. 한국 - TPP 참여국 간 교역 현황

## II.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 08

---

- 08 | 1. 미국
- 17 | 2. 뉴질랜드
- 20 | 3. 말레이시아
- 23 | 4. 멕시코
- 25 | 5. 베트남
- 31 | 6. 싱가포르
- 33 | 7. 일본
- 39 | 8. 칠레
- 42 | 9. 캐나다
- 44 | 10. 페루
- 46 | 11. 호주

##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51

---

## 요 약

□ **TPP 개요 및 한국의 참여 관심 표명**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협정 참여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 **13.11월, 한국 정부의 TPP 참여 관심 표명**

- 한국 정부, “ TPP 참여 여부 결정에 앞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참여 조건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할 것” 이라며 TPP 참여에 관심 표명

□ **TPP 체결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다양한 경제 수준의 **TPP** 국가들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생산비용이 국내보다 낮은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일본과의 **對미 수출 경쟁품목, TPP** 역내국간 공급체계 선점 필요

- TPP 발효 시 일본과의 **對미 수출 경쟁에서 한-미 FTA** 효과 감소

- 기타 TPP 국가들과의 공급체계 선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신흥국을 생산 및 마케팅 기지로 적극 활용**

- 멕시코 등 완성품을 더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TPP 가입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여 생산기지로 활용

- **중산층을 겨냥한 제품의 고급화 전략 구사 필요**

- TPP를 통해 독점적인 관세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진출국 중산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 전략 마련 필요

□ **각국의 TPP 참가 목적 및 전략**

국 가	목 적	전 략
<b>미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지역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li> <li>- 미국-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TPP참여국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시장 개방 모색</li> <li>- 투자장벽 해소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기준 강화</li> </ul>
<b>뉴질랜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강력하고 긴밀한 경제적 유대 형성</li> <li>-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개방형 자유경제체제로서 전부분의 자유화 추창</li> <li>- 주력수출품목인 낙농제품의 확대</li> </ul>
<b>말레 아시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경제구조로서 중국, 한국, 대만 등 수출 경쟁국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li> <li>- 말레이시아를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는 비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참여자로서 룰세팅 단계에서부터 참여, 자국에 유리한 흐름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입장</li> <li>- 전기, 전자, 팜오일 제품 등의 분야로 미국, 캐나다, 페루 등 시장진출 모색</li> </ul>
<b>멕시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미 수출의존도가 80%에 육박하여 수출구조 다변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FTA 체결국가와의 협의내역 개선</li> </ul>
<b>베트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 및 수출입 성과 증진, 양질의 투자유치 및 국가개혁 촉진</li> <li>- 미국 수출 확대를 통해 對중국 의존도 탈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li> <li>- TPP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 관세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li> </ul>
<b>브루나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기대</li> </ul>	-
<b>싱가포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일본 등의 경제 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확대</li> <li>- 중계무역 중심 무관세 국가 이점 극대화 효과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중개 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li> <li>- 협상 분야의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미국 FTA 내용에 근거하고 있어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li> </ul>
<b>일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인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 연대 추진</li> <li>-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와 농업부분 개혁 도모</li> <li>- 각종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시장 접근 및 비관세 분야의 규칙 작성 주도</li> <li>- 환경, 노동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으로서 협상</li> </ul>
<b>칠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참여국 모두와 FTA를 기 체결한 국가로서 TPP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현행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 FTA 체결 내용 중 미흡사항 개선</li> <li>- 공통의 통상규범 마련 및 간소화를 통한 거래 비용 최소화</li> <li>- 남미와 아시아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수행</li> </ul>
<b>캐나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지역 시장진출 및 기존 주요 통상파트너인 미주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심화</li> <li>- 최근 정식 서명한 한국과의 FTA 및 협상 진행 중인 일본 FTA 등과 병행하여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적 경제성장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 육류, 목재, 화학 등 캐나다 주력품목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li> <li>- 협정참여 주요국 투자여건 개선 및 다자간 투자 보호 규정채택을 통한 캐나다 기업 해외투자 보호장치 강화</li> </ul>
<b>페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국과의 협상을 통해 주재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신규 어젠다 발굴</li> <li>- 참여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통한 시장다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고용창출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를 위한 수출확대 도모</li> <li>- 아시아 시장 및 FTA 미체결국가와의 교류 확대</li> <li>- FDI 유치를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 및 고용 창출</li> </ul>
<b>호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 TPP 참여국을 자국 제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료 수급과 필요 공산품 수입처로 여기고 저렴한 부품이나 완성품 수입 확대하고자 함</li> <li>- 낙농 및 식품, 서비스 교역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참여 결정 이후 외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산업 및 종사자들과 설명회 및 의견 청취 진행</li> <li>- TPP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 700회에 이르는 공개 설명회 개최</li> </ul>

# I TPP 협상 동향

## 1.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개요 및 동향 (TPP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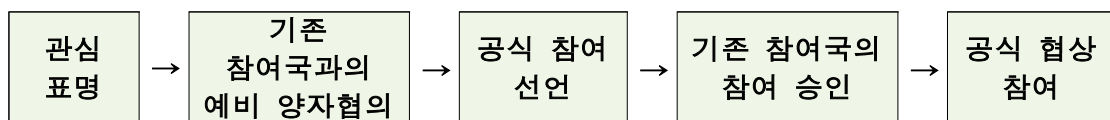
### □ 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 05.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4) 체제로 시작하여 ‘ 14.10월 기준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 중
  - TPP 체결 시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됨
  - 복수국 간 FTA이지만 ‘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추구 등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한국의 TPP 참여

- 13.11월, 한국 정부의 TPP 참여 관심 표명
  - 한국 정부, “ TPP 참여 여부 결정에 앞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참여 조건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할 것” 이라며 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

<TPP 참여 단계>



- 한국은 상기 TPP 참여 단계 중 첫 번째 절차를 밟은 것으로 TPP 신규 합류를 위해선 기존 TPP 협상국과의 양자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존 협상 당사국들의 TPP 합의 도출이 필요
- 한국 정부, TPP 예비 양자 협의 진행 중
  - TPP 예비 양자 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및 분야별 쟁점사항 파악 중이며, 산업별· 분야별 영향분석과 민감분야(농· 수· 축산)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작업 중임

**<한국의 TPP 예비양자협의 진행 현황>**

차 수	날 짜	국 가	우리측 수석대표
1차	2014.1.13.	미국	최경림 통상차관보
	2014.1.15.	멕시코	
	2014.1.17.	칠레	
	2014.1.21.	페루	
	2014.1.21.	말레이시아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2014.1.23.	싱가포르	
	2014.2.7.	캐나다	최경림 통상차관보
	2014.2.11.	호주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2014.2.13.	브루나이	
	2014.2.14.	뉴질랜드	
	2014.2.16.	베트남	
		2014.3.6.	일본
2차	2014.4.3.	미국	최경림 통상차관보
	2014.4.7.	캐나다	
	2014.4.8.	페루	
	2014.4.10.	칠레	
	2014.4.17.	싱가포르	
	2014.4.18.	말레이시아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2014.9.19.	멕시코	최경림 통상차관보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일간지 보도 자료 취합

□ 최근 논의 동향

- TPP 각료회의 주요 논의 내용(10.25-27)
  - ‘ 14.10.25-27, 호주 시드니에서 TPP 협상 참가 12개국 각료회의 개최
  - 동 협상에서 관세 등 시장 접근성과 지적재산권 등의 규제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일본의 의견 격차를 좁히지 못해 각국이 목표로 했던 연내 큰 틀의 합의는 불투명
  - 시드니 각료회의 기간 동안 의약품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 문제, 환경보호, 국영기업 등 이슈와 관련 TPP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림

<주요 분야별 협상 진전 상황>

분 야	협상 진전 상황
상 품	- 일본은 5개 민감 품목(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보호를 원하고,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 - 미국은 일본 자동차 시장 비관세장벽 철폐 및 세이프가드 권한을, 일본은 미국 자동차시장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
지적재산권	- 미국 등이 의약품 지적재산권, 특허권 강화를 요구 -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복제약 생산에의 영향,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반대
국영기업	- 미국은 민간·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지원 철폐 주장 -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신흥국은 국영기업(SOE) 보호를 위해 우대 철폐를 대신하여 국영기업의 내부 감사 강화, 예외분야 설정 등을 제시
환 경	- 기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
투 자	- 기업이 배상을 요구하여 외국정보를 고소할 수 있는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 해결 조항(ISDS)이 쟁점』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미국과 호주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
  - 호주 롭 무역· 투자 장관, 양국간 관세 분야의 협의도 진행 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 미 무역대표부 플로만 대표, 참가국 대표들이 성공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고 언급

- 마지막 날 전체 회의에 앞서 미국·일본 양국 대표 회담 개최
  - 일본의 농산품 관세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함을 인정
  - 일본이 소·돼지고기 관세 인하에 양보하는 대신 수입 급증 시 관세를 되돌리는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중점이 되고 있음
- TPP 협상 전체 국가 정상회의 개최 (11.10)
  - 11.10, 중국 베이징에서 12개국 참여 정상회의 개최
  - 미 무역 대표부(USTR) 플로만 대표, ‘ 15.2월 목표 시기 제안
  - 정상회의 의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 교착 상태를 정치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언급했지만, 회의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종료
  - TPP 협상 정체 상황에서 한-중 FTA가 타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며 TPP 협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견제

## 2. TPP 협정 주요 내용

### □ 협상 목표 및 원칙

#### ○ 협상 목표

-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FTA 체결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달성
- 역내 supply chain 강화를 위한 공통원산지규정 등 도입
-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

#### ○ 협상 원칙

- (일괄타결원칙) 29개 챕터\*에 대한 동시 협상 진행
  -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중소기업, 국영기업 이슈 등
- (상품 분야) 예외 없는 관세화, 국별 단일상품양허안,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 추진
- (서비스·투자 분야) negative list 방식으로 국별 단일유보안 작성



□ TPP 협상 주요 내용

<TPP 협상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상품시장접근	-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방법 등
원산지규정	- '체약국(원산지) 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및 인증 절차
무역원활화	- 통관 절차 간소화
위생검역	- 식품 안정성 확보, 위생검역 조치 이행에 관한 규범
기술장벽	- 제품의 안전규격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 제정
무역구제	-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요건
정부조달	- 정부구매, 공공사업의 발주 관련 규범
지적재산권	- 모조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의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으로 의약품의 저가 공급 차질 발생 우려</li> <li>·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 미국 Special 301조의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로서 우려</li> </ul>
경쟁정책	- 경쟁법 및 제도의 강화, 정부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베트남 등 : 국영기업 보호 철폐 요구에 대한 우려</li> </ul>
국경간서비스	- 서비스 교역에 관한 규제 철폐, 비차별원칙
일시입국	-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및 체제 수속의 간소화
금융서비스	-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관련 규범
전기통신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정 접근 등에 관한 의무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의 환경, 규범의 정리 등에 관한 원칙
투자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비차별 원칙,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
환경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노동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노동기준의 엄격한 준수 요구에 대한 우려</li> </ul>
분쟁해결	- 협정 해석의 불일치 등에 의한 체약국 간 분쟁해결 절차
협력	- 협정 이행 체제가 미비한 국가에 대한 지원
분야횡단적 이슈	- 복수 분야에 걸친 규제에 대한 무역장벽 장치
제도적 사항	-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기관의 설치 및 권한

자료원 : USTR

### 3. 한국-TPP 참여국 간 교역 현황

#### □ 한국과 TPP 협정 참여국과의 FTA 추진 현황

- 한국은 TPP 참여 12개국 중 7개국과 FTA 발효, 3개국과 FTA 서명/타결 완료, 2개국과 FTA 협상 진행 중
  - TPP를 통한 기 체결 FTA 업그레이드, 비체결국과의 자유무역 증진 기대

<한국-TPP 협정 참여국과의 FTA 추진 현황>

	국 가
FTA 발효	미국, 싱가포르,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ASEAN)
FTA 서명/타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협상중	일본, 멕시코

#### □ TPP 협정 참여국 간 교역 현황

- ‘13년 기준 한국의 對TPP 참여국에 대한 교역액은 3,471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 (1조 363억 달러)의 약 33.5%를 차지

<한국의 TPP국가들과의 교역규모>

(단위 : 백만불, %, 2013년 기준)

	수 출		수 입		무 역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전체	535,788	100.0	500,471	100.0	1,036,259	100.0
뉴질랜드	1,491	0.3	1,395	0.3	2,886	0.3
말레이시아	8,588	1.6	11,096	2.2	19,684	1.9
멕시코	9,727	1.8	2,301	0.5	12,028	1.2
미국	62,327	11.6	41,766	8.3	104,093	10.0
베트남	21,088	3.9	7,175	1.4	28,263	2.7
브루나이	102	0.0	1,935	0.4	2,037	0.2
싱가포르	22,289	4.2	10,369	2.1	32,658	3.2
일본	34,662	6.5	60,029	12.0	94,691	9.1
칠레	2,458	0.5	4,658	0.9	7,116	0.7
캐나다	5,203	1.0	4,717	0.9	9,920	1.0
페루	1,440	0.3	1,983	0.4	3,423	0.3
호주	9,563	1.8	20,785	4.2	30,348	2.9
對TPP 참여국	178,938	33.4	168,209	33.6	347,147	33.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lt;협정 참여국 간 교역 현황&gt;

(단위 : 백만불, %, 2013년 기준)

	총 교역액	對TPP참여국 교역액	對TPP 참여국 교역비중
한국	1,036,259	347,147	33.50
뉴질랜드	76,964	35,347	45.93
말레이시아	416,135	185,663	44.52
멕시코	782,281	580,557	74.21
미국	3,782,801	1,655,968	43.78
베트남	244,016	108,068	44.29
브루나이	18,648	12,630	67.73
싱가포르	737,566	278,158	37.71
일본	1,480,609	522,373	35.28
칠레	150,612	56,013	37.19
캐나다	955,881	701,277	73.36
페루	88,950	34,382	38.65
호주	484,466	194,754	40.20

\* 한국의 TPP참여를 가정하여 교역액 정리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II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 1 미국

#### □ 미국의 TPP 참여 목적

- (경제적 취지) 아태지역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가장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아태지역 내 공평한 경쟁 도모
- (전략적 취지) 미국-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전략
  - 대다수의 APEC 국가들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포괄적인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주도
  - 중국보다 앞선 시장경제 기반의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질서 확립

#### □ 미국의 TPP 참여 전략

- (상품 시장개방)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해소
  - 미국이 TPP 국가들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 개방 모색
  - 수입 허가 요건 및 제한 규제 등 기타 비관세장벽 해소
- (서비스) 서비스산업의 ‘강제 현지화’ 완화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 미국 서비스업체들이 TPP 국가 내에서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자유화 모색
  - 모든 TPP 국가에 지점을 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 현지화’ (forced localization) 완화
    - \* 강제 현지화 : 외국 기업을 차별하여 국내 제조, 첨단기술 및 R&D 기능·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의무적 기술 이전, 현지 소싱 의무화 등을 요구

- 각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를 보호하는 선에서 금융 및 보험시장의 자유화 모색
- **(투자)** 투자장벽 해소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기준 강화
  - 특정 이행의무, 불법적 수용 등 TPP국가 내 각종 투자장벽 해소
  -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및 국내 기술사용 의무 등 비관세 장벽 완화
  - 미국 투자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 절차 확립
  -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의 투명성 및 기준 강화
- **(노동)**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장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기본 노동권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 조성
  -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는 노동법 위반을 제지하기 위한 규정 확립
  - 노동 관련 이행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각국 정부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치하도록 의무화
- **(환경)** 집행 가능한 환경적 의무사항 합의 및 다자간 환경 협약 존중
  - 집행 가능한 높은 수준의 환경 의무사항에 합의하고 기타 분야와 동등한 분쟁해결 절차 구성
  - 야생동물 밀매, 불법 벌목 및 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조항 마련
  - 국내 환경법 및 다자간 환경 협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의
  - 각국 정부들이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조치하도록 의무화
- **(국영기업 및 경쟁제도)** 공평한 경쟁, 소비자 보호, 투명성 강화 강조
  - 제도적 공평성 및 경쟁법 집행에 대한 기본규칙 확립
  - 각국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은 허용하되 국영기업에 대한 특별 혜택 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의
  - 각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및 영향력 등에 대한 투명성 의무화

- **(중소기업)** TPP의 중소기업 활성화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
  - 중소기업에 TPP 활용 정보 및 방안 제공
  - TPP의 중소기업에 대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구축
- **(재산권)** 특허권, 판권, 기업기밀 등 지재산권 보호 강화
  - 사이버 절도(cyber theft) 방지 대책을 포함한 특허권, 판권, 기업기밀의 강력한 보호 제도 확립
  - 제네릭 의약품산업의 기회, 저렴한 의약품 공급을 보호하되 의약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약 지재산권 보호 조항에 합의
    - \* 제네릭(Generic)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하는 말
  - 상표권 및 지리적 상표표시(GI: geographical indicator)에 대해 새로운 조항 마련
  -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하고 평등한 법적 규칙 마련
  - 적법한 디지털 상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항에 합의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조항 확립
    - \* 세이프 하버 :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 신상 정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함
- **(규제 일관성)** TPP국가들의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 및 정합성
  - 새로운 규제 및 정부 정책 또는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안, 규제, 행정명령 등의 조속한 발표 및 의견 반영 기회 제공에 합의
  - 미국의 FTA 중 최초로 규제 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TPP 역내에 일관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
- **(기타)**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세관 등
  - 무역기술장벽(TBT) 및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관련 대화 및 협력 체계 구축
  - 정부조달 관련 공평하고 투명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별 민감품목을 제외한 정부조달의 균등한 시장 개방
  - 조속한 세관 절차 및 관세법에 대한 집행 협력 강조

□ 국가별 쟁점 사항

국가	對美 쟁점사항	미국 쟁점 사항
일본	- 5개 민감 농산품목 보호 - 미국육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한 - 미국 자동차시장 관세 철폐	-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 - 일본 자동차시장 비관세장벽 철폐 - 일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한
베트남	- 국영기업(SOE) 보호 - 데이터유통 제한 - 미국 의류·신발시장 개방	- 원사규정 적용 및 원산지규정 강화 - 환경보호규정 강화 -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개선계획 (Labor Action Plan) 작성
호주	- 시청각 쿼터제 유지 - 의약품지원제도 보호 - 미국 농산물시장(설탕) 개방 - ISD 조항 최소화	- 방송시장 개방 - 지적재산권 강화
뉴질랜드	- 미국 유제품시장 개방 - 미일협상 사항 공개	- 지적재산권, 특허권 강화
말레이시아	- 데이터유통 제한	-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칠레	- 외국인 투자 제한 - 미일협상 사항 공개	- 지적재산권, 투자 조항 강화
싱가포르	- 국영기업(SOE) 보호	- 국영기업 보조 제한
캐나다	- 미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조항 강화 - 주, 시, 군 단위 정부조달 TPP 적용 제외 - 캐나다 유제품, 닭고기 시장 개방
멕시코	- 시장접근 설정 후 규정 협상	- 미 농산물에 대한 통관절차 개선
브루나이	- 국영기업(SOE) 보호	- 미 민주당, 브루나이 인권 개선 요구 - 공화당 일부, 이슬람 율법을 도입한 브루나이 가입 반대

□ 산업별 쟁점 사항

○ (섬유) ‘원사규정’ (yarn forward) 고수 및 특별 세이프가드 허용

-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하는 ‘원사규정’ 고수

- 역내 생산이 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부족한 특정 섬유제품을 ‘short supply list’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재 섬유)에 포함
  -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강력한 집행 조항 및 세관 협력 약속
  - 급증하는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섬유 품목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허용
  - 베트남은 원사규정 완화와 미국 의류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 중
- **(자동차)** 일본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 철폐와 스냅백 조항 허용
- 규제 투명성, 기준, 인증, 금융 혜택, 유통 등에 적용되는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조치 요구
  - 협정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관세 철폐와 양허 내용을 취소하는 스냅백 (snap back) 조항\* 포함
    - \* 한미 FTA에도 적용 중
  - 특정 차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허용
  - 美 자동차에 대한 양국 비관세장벽 판정 시 일본産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TPP 합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관세 유예 장치 (tariff delay mechanism) 도입
- **(유제품)** 캐나다, 일본 시장 개방과 뉴질랜드産 유제품 수입 제한
- 북미자유협정에서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개방
    - \* 美 상원의원 36명과 하원의원 74명은 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 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로 송부 (‘13년)
  - 미국 유제품에 대한 일본의 관세 인하 및 규제 완화\*
    - \* 일본은 유제품을 민감품목으로 규정
  - 유제품 최대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유제품 90%가 Fonterra社에 의해 서만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뉴질랜드産 유제품에 대한 TPP 적용 제외 요구\*
    - \* 팀 그로저(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은 뉴질랜드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상충하고 있음을 인정



○ **(설탕)** 호주産 설탕 수입 제한 유지

- 세계 9위의 최다 설탕 생산국인 호주는 미국의 설탕\*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

\* 미국은 8위의 최다 설탕 생산국

- 설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도입 중인 미국은 일본의 설탕 민감 품목 지정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Inside U.S Trade*紙는 보도

\*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 음료수업계와 제과업계와 같은 설탕 사용 산업 업체들은 미국 설탕 시장의 개방을 희망

○ **(육류)** 일본, 캐나다, 호주 육류 시장 개방

- 호주가 육류 수입품에 대해 적용중인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체계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완화 요구

-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

- 가금류 시장 보호를 위해 공급관리체계를 운영 중인 캐나다의 규제 완화

□ **산업별 반응 및 요구사항**

○ **(섬유)** 미주지역 섬유업계, 중남미 섬유 공급망 보호해야

- 미국섬유협회(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 멕시코섬유산업 협회(CANAINTEX), 중미지역 및 도미니카공화국의 섬유업계 단체인 CECATEC- RD는 TPP가 중남미 섬유 공급망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원사규정(yarn forward) 및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한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농축산업)** 일본의 완전한 시장개방 없으면 TPP 지지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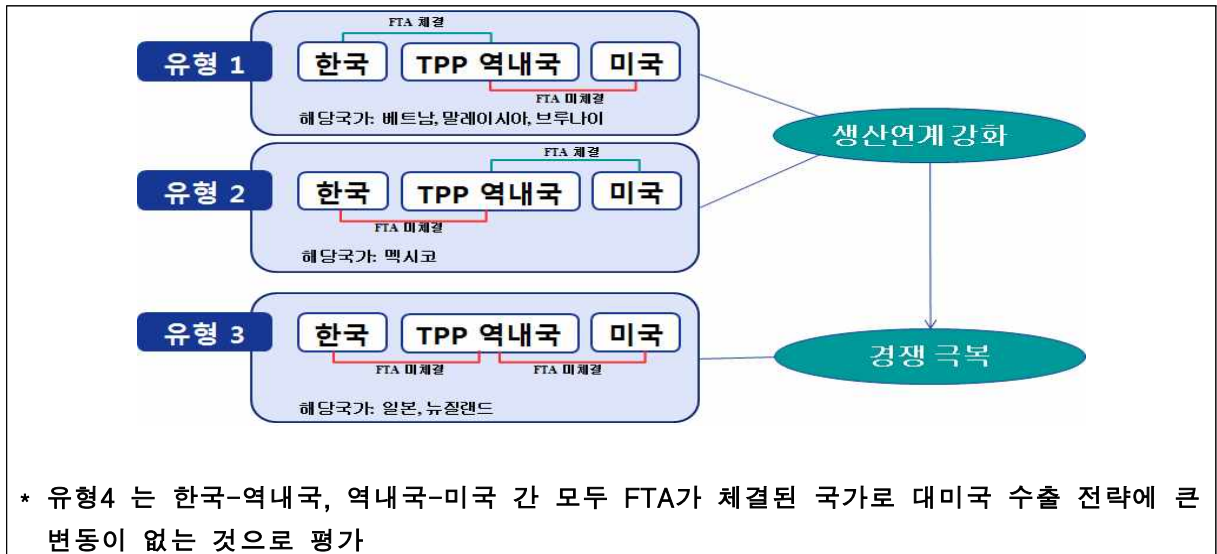
- 미국축산협회, 양돈협회 등은 일본이 축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한 TPP 및 무역촉진권한(TPA)을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

- 유제품 업계는 일본과 캐나다의 관세 철폐를 요구 중
  - 미국 쌀연합회는 TPP에서 일본이 한미FTA 때처럼 쌀에 대한 관세 철폐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외 품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
- **(자동차)** 일본의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 비판 ... 환율개입 조항은 필수
-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폐쇄적 시장을 비판
  - 또한, 일본이 환율시장에 개입해 무역에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환율시장 개입을 제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 없다면 TPP를 반대할 것이라고 표명
- **(제조업)** 미국제조업연합회(AMM), TPP의 혜택은 비용에 비해 극소
- 미국제조업연합회(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의 스캇 폴 (Scott Paul) 회장은 “ 미국 산업의 관점으로 볼 때, TPP의 혜택은 비용에 비해 매우 극소하다” 며 TPP와 무역촉진권한(TPA) 반대 입장 표명
  - 폴 회장은 TPP가 발효되면 “ 자동차 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양보해야 하고 신발류 제조업자들을 잃을 것이며 임금 저하 압력도 있을 것” 이라고 비판
- **(제약)** 미국 제약협회와 제네릭의약협회 독점권 보호 관련 대립
- 미국제약협회(PhRMA)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12년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TPP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미국제네릭의약협회(GPhA)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향후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12년의 자료독점권 설정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
  - 또한, 제네릭업계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및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철강)** 미국 철강업계, 환율개입 및 국영기업 관련 강력한 조항 요구
- 미국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는 아시아 지역

- 철강 산업의 상당 부분이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공평한 경쟁을 위해 집행 가능한 조항을 요구
- 철강 국영기업의 경영 및 지분 구조, 정부의 혜택(자금 지원, 보조금 등) 등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영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확립 등 요구
- 환율개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최근 엔저정책을 언급하며 환율시장 개입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 촉구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

<TPP 역내국과 한·미간 FTA 체결 유무에 따른 유형 분류>



- **[유형 1]** 한국과 FTA 체결했으나 미국과 FTA 미체결국을 통한 전략
  - 해당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해당품목: 섬유, 가전, 통신기기
  - TPP 기대 효과: 최종 생산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
  - 전략: 생산설비를 非TPP국가에서 또는 국내에서 TPP 역내국으로 통합 이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거점 변경)
  - (예시1) 베트남에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일관생산 체계 구축
  - (예시2)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가전 및 휴대기기 공장 설립 및 생산물량 확대

- **[유형 2]**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한국과 FTA 미체결국을 통한 전략
  - 해당국가: 멕시코
  - 해당품목: 자동차, 가전
  - TPP 기대 효과: 최종 생산 국가의 한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
  - 전략: 소재부품의 관세 혜택에 따라 멕시코에 위치한 가전 및 자동차 공장의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저렴한 인건비와 미국 시장 접근성 최대 활용
  
- **[유형 3]** 한미 양국 모두 FTA 미체결 국가, 일본의 시장 진출에 대비
  - 해당국가: 일본
  - 해당품목: 일본과의 경쟁품목 (자동차, 기계류, 전자제품 등)
  - TPP에 따라 일본 역시 위 [유형1] 및 [유형2]의 생산연계를 통한 대 미국 수출이 가능
  - 전략: TPP 역내국들과의 공급체계를 선점하여 경쟁에서 우위 차지

## 2 뉴질랜드

### □ 뉴질랜드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뉴질랜드는 TPP의 원조인 P4의 참여국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의존도가 높음. (뉴질랜드 전체 무역/투자액의 70%)
-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TPP 참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임.
- TPP 발효 시 뉴질랜드는 2025년 약 20억 달러의 GDP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현 GDP 기준 약 0.9% 증가)

#### ○ 참여 전략

- 뉴질랜드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대외개방형 자유경제체제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1차 산업제품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전부분의 자유화를 주창
- 일부 수입금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특히 공산품에 대해서는 이미 0~5%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TPP와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상황
- 뉴질랜드는 TPP를 통해 자국의 주력수출품목인 낙농제품의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對 미국) 뉴질랜드 3위의 교역국으로 농업과 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對미 수출품목을 TPP를 통해 미국 정부조달시장과 서비스시장으로 확대할 계획. 최근 미국이 TPP협상에서 낙농업분야를 뉴질랜드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 상황

- **(對 일본)** 뉴질랜드 4위 교역국으로 TPP 참여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이며 TPP를 통해 對일 낙농제품 수출확대 계획
- **(對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미 호주-아세안-뉴질랜드 FTA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 교류중이며 TPP는 이런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것임.

○ **산업별 쟁점사항**

- **(낙농업)**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에서 낙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세계 최대의 낙농업 수출국가인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뉴질랜드와의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함.

○ **분야별 쟁점사항**

- **(지적재산권)** 미국이 TPP 협상에서 최대 쟁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문제 대해 뉴질랜드는 미국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주도의 TPP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배제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우려가 있음.

□ **산업계 반응**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낙농업)** 뉴질랜드 최대 낙농기업인 Fonterra는 TPP내 투자 및 금융 서비스 협상에 대해 지지를 밝혔음. 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는 TPP 협상에서 낙농품이 제외되는 것에 반대하며 협상으로 인한 낙농품 수출 지역 확대를 지지함.
- **(유기농제품)** Organic Product Exporters of New Zealand Inc.는 TPP 협상에서 FTA와 동등한 수준의 유기농 승인기준 포함을 주장함.
- **(노동조합연합회)** 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은 투자부분에 있어 민감한 자산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하훼)** NZ Flower Exporters Association은 TPP를 통해 미국으로의 화훼수출을 증가를 기대함.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전략**

- 한-뉴질랜드 FTA가 11.15 타결되었으며, 동 FTA의 발효를 염두에 두고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자동차 등의 뉴질랜드 관세가 이미 0%로 FTA나 TPP의 영향이 낮을 것으로 전망
  - 기타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역시 5%로 관세철폐의 효과가 미미하나 뉴-중 FTA(2008.10 발효)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기존 중국산 수입 제품과의 가격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3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국제무역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 때문에, 중국, 한국, 대만, 태국 등 수출 경쟁국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 글로벌 시장과 TPP로 연계된 말레이시아를 기지로 활용하려는 비 TPP회원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기회로 활용
-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TPP를 통해 수출과 GDP성장에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로 분석됨.
- UNDP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1.46%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 ○ 참여 전략

- 초기참여자(First Mover)로서 룰세팅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자국에 유리한 흐름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입장
- TPP를 통해 말레이시아가 수출시장 확장을 노리는 핵심 분야는 전기 전자, 고무장갑, 팜오일 제품, 합판, 목재 등의 분야로 그동안 FTA 효과를 보지 못했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에 추가 시장진출 모색
- 또한, 말레이시아는 캐나다와 페루에 팜오일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TPP 발효즉시 관세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협상 추진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TPP의 ‘소수집단우호정책’ 권장에 반하는 말레이계 우대 ‘부미 푸트라’ 정책에 대해서는, 다수지만 경제적으로는 약자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TPP 틀 속에서 이런 현실을 수용할 것을 제안



- ‘정부조달’은 말레이시아가 이전 FTA에서 다뤄보지 못한 분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분야이며, 부미푸트라 기업들과의 이해 관계를 따져가면서 정리해야 할 분야임.
-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 문제도 당장 TPP기준을 따를 수 없어 TPP에서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투자자-국가간제(ISD)에 대해서 TPP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더 보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 산업별/분야별 쟁점사항

- 지적재산권(IPR)분야는 의약품 및 건강과 관련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길어져서 일반의약품 제조로 전환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들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되면 오히려 기업들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산업별/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으나, TPP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비해 실질적인 수출증가보다 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말레이시아 말레이계 업계를 대표하는 NGO인 Malay Economic Action Council(MTEM)에서는 TPP로 인해 매년 50억 링깃(17억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건설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

#### □ 산업계 반응

#####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팜오일이나 목재 등 원자재 및 가구, 식품·가공분야 업계에서는 TPP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임.
- 또한 말레이 섬유/봉재업계는 TPP를 통해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임.

- 말레이 자동차 업계도 TPP를 통해 회원국들로 수출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임.
- 그러나 공기업, 중소기업, 부미푸트라 기업 등 기존 시스템 하에서 많은 지원과 특혜를 받았던 기업군들에게는 TPP를 통한 공정경쟁체제 도입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부정적인 입장임.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전략**

- ‘한-아세안 FTA’ 를 활용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 금년 내 TPP의 타결이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TPP 발효 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한-아세안 FTA’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를 생산 및 마케팅 기지로 적극 활용
  - TPP 발효 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역내에서 글로벌 시장접근이 가장 원활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해외시장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 추진 필요
  - 일정한 내수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영어가 통용되면서 싱가포르보다 인건비나 생활비가 저렴해 지역본부 입지로 말레이시아가 부상 중

## 4 멕시코

### □ 멕시코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멕시코는 ‘14년 8월 현재 14개 FTA 협정을 통해서 45개국과 조약을 이미 맺고 있으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TPP 에도 참여하고 있음. (현재, 對미 수출의존도가 80%에 육박함)

#### ○ 참여 전략

- ‘12년 미국과 중국 간 환태평양지역의 경제주도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이 멕시코에 TPP 가입을 제안함에 따라 최초 참가하게 되었으며, 이미 양자간 FTA 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협의내역을 개선하는 전략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멕시코 입장에서 TPP는 기존에 체결된 주요 FTA인 NAFTA가 규제하고 있지 않은 지재권, 투자, 서비스, 정부구매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국가 간 쟁점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

#### ○ 산업별 쟁점사항

- 멕시코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서 3차 산업이 약한 편으로, 동 분야에서 타국대비 경쟁력이 약한 상태에서 시장개방 시 타 국가에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산업계 반응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멕시코에는 ‘ 14년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북미시장 및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등 투자진출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 확보 및 내국인 고용확대를 노리고 있음.
- 단,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경쟁열위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한국의 TPP 가입 시

- 1) 완성품을 더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TPP 가입국가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전략, 2) 완성품을 낮은 관세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TPP 참여국에 직접 수출하는 전략 그리고 3) TPP 가입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전략 등 기업별로 최대한 유리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음.

○ 한국의 TPP 미가입 시

- 멕시코에 그린필드 직접투자를 통하여 북미시장 및 남미시장에 대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의 이점을 확보하여 타 TPP 또는 FTA 체결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전략 필요

## 5 베트남

□ **베트남의 TPP 참여 목적**

- 베트남은 현 TPP 회원국 중 가장 발전이 더딘 국가이나 TPP 참여를 계기로 경제 성장 및 수출입 성과 증진, 양질의 투자유치 및 국가개혁 촉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 협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
  - TPP는 투자,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등 시장개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협정으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가장 핵심적인 무역협정 중 하나임

<TPP 참여국별 경제수치 비교>

(단위: 명, 달러)

국가명	對베트남 FTA 유무	인구 (백만)	GDP (십억)	베트남 수입 (백만)	베트남 수출 (백만)
싱가포르	○	5.4	372.81	10,872	3,059
뉴질랜드	○	4.4	185.80	391	376
칠레	○	17.5	277.20	307	281
브루나이	○	0.4	16.11	611	10
미국		316.3	16,768.05	5,012	25,956
호주	○	23.0	1,671.88	2,027	3,665
페루		30.3	200.64	N/A	N/A
말레이시아	○	29.7	312.90	4,232	6,004
멕시코		117.4	1,262.39	105	1,486
캐나다		35.1	1,826.73	415	2,007
일본	○	127.3	4,898.46	10,550	14,233
베트남		90.6	171.23	143,908	138,104

자료원: trademap.org, Euromonitor International

### ○ 수출입 성과 증대

- 베트남에서 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2010년과 2013년 베트남 전체 수출의 각각 43.3%, 39%에 해당하며, 베트남 주요 무역 대상국인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또한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어, TPP는 앞으로 베트남 수출 시장을 넓혀줄 매개체가 될 것임.
- 향후 베트남은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쌀, 해산물, 섬유/의류, 신발류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감세 혹은 관세폐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

### ○ 분야별 해외무역투자 촉진

- TPP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의 베트남 시장진출 및 투자진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관세폐지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영향)
- 베트남은 경제 개혁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생산기지 중 하나로 떠올라 Canon, Intel, Samsung, Toyota, Ford, General Motors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TPP 이후 몇 년 간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FDI 또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있을 TPP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현재까지 TPP 회원국뿐만 아니라 홍콩, 오스트리아, 한국 등 각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13년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의 TPP 관련 투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남.

### ○ 국내 개혁 촉진

- TPP는 또한 법률제정 및 국영기업 운영, 은행 시스템 운영 등 베트남 국내 개혁을 촉진할 것임.
- 베트남 국영기업은 세금 면제, 투자 우선권, 일반 시장규제로부터의 보호 등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베트남 시장 경제 투명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 중임.
- TPP 협상에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중립적인 경쟁, 투명성, 재정구조 등이 논의되고 있어 국내개혁을 촉진시킬 매개체가 될 것임.

## □ 베트남의 TPP 참여 전략

- 최근 베트남 정부는 TPP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 관세 및 투자 관련 법령을 개정함.
  - 국회에서는 ‘13년 6월 관세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동 관세법에는 관세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아직 TPP 이후 있을 관세폐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기업 경영 및 생산방식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함.
  - TPP는 베트남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현재 베트남 기업들은 개혁을 진행 중임.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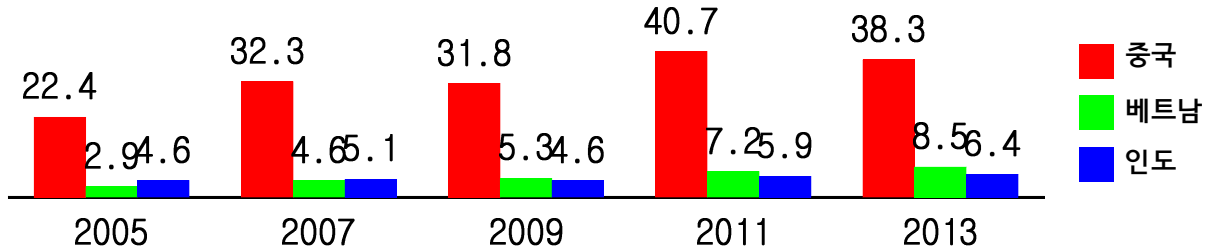
- **(상품·서비스)** 상품 무역의 관세인하 및 철폐는 대부분 무역 협정의 기본적인 관행으로, 현재 TPP 회원국들의 평균 MFN 관세율은 0~10%로 다양함.
  - 수출입 인허가절차, 세관 발행, 무역 촉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섬유/의류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폐지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차이가 존재
  - 미국은 자국 내 수입에 민감한 상품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면세기간, 특별 보호조치, 원산지 규정 제한 등을 무역협정에 포함시켰으며, 베트남은 용이한 미국시장 접근을 위해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지적 재산권)** 모든 기업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며, 특히 지식 기반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임.

- 현재 베트남에는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지적 재산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음악, 영화, TV, 소프트웨어, 제약 산업에서 심각한 문제점임.
  -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 협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국가에 대한 특혜로 적절함.
    - 협정에서는 자국의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만이 TPP 원산지로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이는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14년 4월까지 민감한 품목인 섬유, 강철 부문 이외 6자리 HS코드 제품의 62%가 원산지 규정을 통과함.
  - **(노동)** 베트남 노동조합과 기타 시민단체는 국가규제에 대한 수단으로,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할 권리와, 파업권 모두 제한되어 있음.
    - TPP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자유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임.
  - **(국영기업)** 국영기업은 정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영향 아래에 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베트남 국내 생산량의 40%를 생산함.
    - 민간 기업들과는 달리 국영기업은 보조금, 낮은 거래비용, 정부조달 혜택, 무역 보호 등의 이점이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 ‘11년, 미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국영기업 관련 공정경쟁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국영기업 관련 문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또한 언급되는 사항임.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섬유/의류산업)**
    - 섬유/의류사업은 베트남 전반적인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수출 분야로, 현재 베트남 해당부문에 3,800여개의 업체가 존재함.



<미국 섬유/의류 수입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베트남미국상공회의소(Amcham Vietnam)

- TPP 양포워드(Yarn-forward) 규정에 따르면 원자재가 TPP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함.
-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의류의 88%가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어, 면세 혜택에서 제외될 여지가 존재함.

○ (농업)

- 현재 베트남에는 농업 부분 보호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모든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사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으며 해외의 시장개방 수요 또한 높으나, 시장 개방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려 할 것임.
- TPP 국가들의 검역, 항생제 잔류시험, 포장, 라벨 기준 등으로 인해, 무역기술장벽(TBT)과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은 관세폐지보다도 농산품 수출 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철강 산업)

- TPP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부문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수입할 기회가 증가할 전망
- 현재 TPP 회원국들은 고품질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

- 현재 베트남은 주로 ASEAN 시장에 0%관세로 강철을 수출하고 있으나, TPP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등 잠재력이 높은 시장까지도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현황· 전략**

- ‘ 14년 4분기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는 TPP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열강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 중
  - TPP 발효 시,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더욱 수익성 있고 투명한 환경을 갖추게 되며 투자비용 또한 감소하게 되어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국기업 ‘ 동일 베트남’ 사는 동나이(Dong Nai)시의 록안-빙썬(Loc An-Binh Son) 공업단지에서 5,2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 15년 중반에 완공예정이며 매년 9,000톤의 섬유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
- 한세실업은 TPP 섬유원산지 규정이 미국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작년에 빙폭성에 있는 염색공장을 인수하였으며, 원단 생산시설도 상황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
  - 한세 베트남 현지법인장은 “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TPP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 대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함.
- 섬유, 의류 업체들 외에도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업체들도 TPP 출범에 대비한 대규모 베트남 투자를 추진
  - LG전자는 올해 말 북부 하이퐁에 15억 달러 투자규모의 대규모 가전 공장을 완공할 예정
  - 삼성전자도 북부의 휴대폰 공장의 생산물량을 늘리는 한편, 호치민 인근의 공단 내에 13억 달러 규모의 복합가전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음.
  - 락앤락은 올해 국내 아산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공장 생산 비중을 축소 하는 대신 베트남의 연짱과 봉타우 소재 공장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육성 중.

## 6 싱가포르

### □ 싱가포르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기존 FTA의 관세 철폐 부문 뿐 만 아니라 투자, 기술(지식재산권), 자원, 환경, 정책 등의 회원국 통상 전반을 다룸으로써 국제 통상의 표준으로 부각되는 바, 일관된 비관세 및 경제자유도가 높은 정책을 유지해온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여 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작은 경제 주체로 국제 통상법의 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후, 미국, 일본 등의 경제 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 참여 전략

- ‘12년 기준 전 세계 명목 GDP의 38.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중개 무역 중심의 무관세 국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 미국이 미국식 표준을 회원국에게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본, 베트남 등 회원국과 마찰이 있지만, 지식재산법, 금융서비스, 환경법, 노동법 등 협상 분야의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미국 FTA 내용에 근거하고 있어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
- 협상 체결과 확대를 위해 미국이 TPP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협조하는 성향이 있음.
- TPP를 통해 거대 경제권에 합류하는 한편,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진행함으로써 낮은 규제의 이점도 획득하려 함.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국가별 쟁점사항

- 싱가포르의 경우 TPP 협정 대부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TPP 참여 국가와 양자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TPP 발효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분야별 쟁점사항

- 국영 기업의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 특성 상, 국영 기업에 대한 저리 신용 대출, 정부 조달 관련 특혜 부여 등 어떠한 혜택도 부정하고 민영 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는 TPP 규정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싱가포르-미국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의료비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치료법과 관련된 특허 적용 여부와 신약에 대한 자료 독점권 여부가 쟁점

□ 산업계 반응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높은 수준의 FTA 기준에 맞춰져 있는 관계로 TPP와 관련된 특이할 만한 반응은 없음.
- 원산지 표기와 관련, ASEAN+ 와 중복되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 우려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 기 체결된 한국-싱가포르 FTA로 인해 대부분의 장벽이 사라진 상황
- 또한, TPP 특성상 FTA 보다 높은 수준, 넓은 분야에 대해서 체결되는 관계로 싱가포르 진출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7 | 일본

### □ 일본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전략적인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 연대 추진 : ‘ 13년 아베 정부가 발표한 ‘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중 ‘ 국제전개 전략’ 의 중심

#### - 성과 목표

□ 18년까지 무역 자유화 비율 70%(‘ 12년 기준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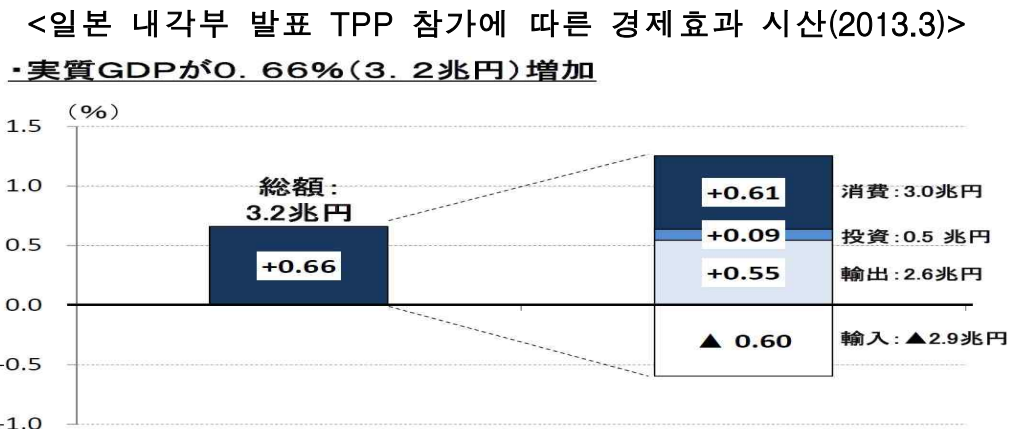
□ 20년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의 수출 금액 ‘ 10년도 대비 2배 달성

#### ○ 일본 정부 시산 TPP의 경제 효과 (내각부 발표)

- ‘ 13년 3월 일본 정부는 TPP 참가로 GDP의 2.0%에 해당하는 1,050억 달러(10조엔, 발표 당시 환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시산

- 농림수산물 생산액은 3조엔 감소하지만, 일본 경제 전체로는 실질 GDP가 3조2천억엔 상승하는 것으로 시산

- 세부 내역으로는 소비 +0.61%(3조엔), 수출 +0.55%(2조6천억엔), 투자 +0.09%(5천억엔), 수입 △0.60%(△2조9천억엔), 총 합계 **+0.66%(3조2천억엔)**임.



자료원: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 참여 전략

- 높은 수준의 통상 자유화를 목표
- 상품시장 접근(물품의 관세 철폐·삭감) 및 비관세 분야(투자, 경쟁, 지적 재산, 정부 조달 등)의 규칙 작성 이외 환경, 노동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으로서 협상 중

분 야	전 략
상품 시장 접근	- 일본이 아직 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에서 자국 수출품의 관세 철폐 목적. 또한, 이미 EP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 남아있는 나머지 관세 철폐
원산지 규정	- TPP 협정 협상 참가국간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통한 제도 간소화 실현 및 세관, 무역 실무 부분에 있어 일본의 규칙 반영 - 또한, 원산지 증명을 광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내 공급망 활용한 사업을 촉진
무역 원활화	- 일본 세관이 도입중인 단일 창구 제도 등의 제도가 TPP 협정에 규정되도록 하여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 촉진. 특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 촉진에 활용
정부 조달	- 일본이 기 체결한 EPA에 정부 조달 분야가 누락된 말레이시아, 구속력이 약한 베트남, 브루나이와 TPP로 더 높은 수준의 협정안 추진
지적 재산권	-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가칭))과 같은 수준의 규정을 TPP 협정에 포함시켜 일본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촉진 - 사업자간 라이선스 계약에 정부가 개입(로열티 요율 규제 등) 금지 및 기술 공개에 관한 규칙의 정비 등을 TPP 협정에 포함시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로 이익 창출 촉진
Cross Boarder 서비스	- TPP 협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채택될 경우 지금까지 일본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EPA를 체결한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간 자유화 분야 확대 - 규제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자국 업체에게 (해당 국 규제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금융 서비스	- 높은 수준의 규칙과 시장 접근의 개선(예: 외자 규제와 재보험 규제의 자유화)을 규정화, 특히 ASEAN 지역 TPP 협정 협상 참가국에서의 일본 금융 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
전기 통신 서비스	- 통신 분야의 각국 자율 규제(예: 주요 통신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의 금지, 상호 연결 의무화 등)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정을 추진, 국제 거래 시 일본 사업자의 비즈니스 활동 원활화

<b>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협정 협상 참가국 중 주로 ASEAN 국가에서 외자 규제, 자국민 고용 수요, 기술이전 요구 등 다양한 투자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내국민 대우 및 특정 조치 이행 요구의 금지 규정을 포함시켜 일본 기업의 외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초를 구축</li> <li>- ‘국가와 투자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ISDS) 규정 포함 추진. TPP 협상 참가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이 진출 국가의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자산 수용 등의 사태 발생 시 이러한 규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li> <li>- 투자에 대해서는 WTO 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PP 협정으로 투자 관련 다국간 규정 책정으로 일본의 국익을 반영</li> </ul>
<b>환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 규정 및 환경 관련 조약의 준수 규정을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 기준이 높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연결</li> <li>- 일본이 강점을 가진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li> </ul>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국가별 쟁점사항

- **(對 미국)** 일본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농산품 관세 철폐 부분임. 미국이 이른바 ‘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를 주장했으나 일본은 ‘ 성역 5개 품목’ 의 관세 철폐 절대 반대 입장임.
- 현재 일본이 소뿔지고기의 관세 인하를 양보하는 대신, 수입량 증가 시 관세를 되돌리는 세이프 가드 발동 조건 완화 요구. 쌀은 미국산 수입량 증가를 요구중임.
-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산 수출 차량이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을 일본에서도 적용하도록 요구중이나, 일본이 반대
- 또한, 일본 자동차 수입 급증 시 세이프 가드 도입을 인정해줄 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 인하를 요구.

<주요 협상 분야 및 각 국의 주장>

분 야	협상 진전 상황	
지적재산권 (특허권 보호기간)	저작권 및 신약 특허권 보호 기간 연장 (미국)	가능한 한 보호기간 단축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환경 (어업보조금)	어업 보조금 폐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 수산자원 관리 관점에서 필요 (일본)
경쟁분야 (국영기업 관련)	국영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폐지 (미국)	국영 기업이 다수 존재. 급속한 민영화 반대 (말레이시아)

주요 품목 관세 철폐	품목	찬성	반대
	쌀 보리 쇠고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제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설탕	호주	일본, 미국
	자동차	일본	미국, 호주

자료원 : 마아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 산업계 반응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자동차: 찬성) "미국 시장의 상승세는 지금의 업계에 큰 포인트임. 미국 시장이 큰 데다 성장 중으로, 향후 경제 동향이 큰 관심사" 닛산 자동차의 니시 부사장은 11월 4일 결산 회견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TPP 협상 관련 질문에 상기와 같이 언급.
- 자동차 시장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는 소비 증세로 판매가 부진,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 리스크가 표면화 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됨.
- (철강: 찬성) 일본 철강 산업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강재의 관세 철폐가 포함된 TPP 추진을 환영.
- 그러나, 미국으로의 강재 수출은 감소 추세. 일본산 강재에 대해 반덤핑 조치 약 10건 적용 중, 1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있음.



- 따라서 "TPP가 진행 되어도 구조적으로 강제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견해도 있음.
- **(기계: 찬성)** 일본 공작 기계 업계는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TPP에 찬성의 입장.
- 일본 공작기계 산업은 미국에서의 수주가 호조임. 오바마 정권의 제조업 회귀 현상으로 현지 수요가 급증, 미국 시장의 존재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 **(종합 화학: 변화 없음)** 종합화학 업계는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 TPP 협상의 진전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음. 해외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동일해지기 때문.
- TPP 추진으로 주요 고객인 국내 자동차 생산이 확대되면 화학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기대.
- 다만, 일본 국내 화학 생산 기지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범용 제품 생산 재편이 진행 중임. 저렴한 비용으로 범용 화학제품 생산은 중동과 북미,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일 전망으로 일본 국내 거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됨.
- **(농업: 반대)** 일본 농업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농무부가 TPP 효과를 시산, 이에 따르면, 참가국의 농산물 무역은 6%, 총 85억 달러(1달러 약 116엔 환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그 중 33%에 해당하는 28억 달러를 미국이 차지하게 됨. 이에 대해 일본의 수출 증가분은 가공품을 중심으로 8,300만 달러로, 참가국 전체 수출 증액분의 불과 1.4%에 불과함.
- 한편, 참가국 수출 증가액의 70%에 해당하는 58억 달러 상당이 수입으로 일본이 떠맡는 형태가 되어 일본 농업만 '패배'가 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수입액 증가 품목은 육류가 절반을 차지하고, 쌀을 포함한 곡물, 기타 가공품, 유제품 등으로 이어짐.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 전략**

- 농산물, 공산품 등의 수출은 가격 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 높음
  - 예를 들어, 최근 뉴질랜드 산 파프리카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출 농산품으로,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뉴질랜드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며 한국산과의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임.
- TPP 가입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
  - 공산품, 자동차 부품 등은 역내 신흥국의 생산 거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한 진출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재 등 가격경쟁력이 필요한 제품은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짐.
  - 반대로, 자동차나 전자 부품, 소재 등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 8 칠레

### □ 칠레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21세기 '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통합(TPP) 마련에 동참
- 칠레는 현재 TPP 참여국 모두와 FTA를 기 체결한 국가로서 TPP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현행 통상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 참여 전략

- 양자 FTA 체결 내용 중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시장접근 분야 등)
- 공통의 통상규범 마련 및 간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최소화(관세행정, 원산지 규정, 위생검역 등)
- 남미(MERCOSUR)와 아시아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수행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기 FTA 체결국인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해 시장접근(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인하)과 위생검역 간소화 등 논의
- 멕시코, 페루와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테두리 내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전기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협상을 병행 중
- 미국과는 양자 FTA 내에서 지재권, 저작권 분야에 대한 재협상 중

#### ○ 산업별 쟁점사항

-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 가능성과 관련, 제약 산업의 경쟁력 약화, IT 분야 등 혁신기업들의 창업정신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분야별 쟁점사항

- 칠레 외교부 통상교섭 담당부서(DIRECON)에 따르면 칠레에게 가장 민감한 분야는 지적재산권, 공기업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
- **(관세행정 표준)** 상품의 운송, 통관반입과 관련된 기준의 명확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모색
  - \* 예시: 전자증명서 발급, 관련 기준 및 절차정보의 전산 공유 등
- **(원산지 증명)** 역내 참여국 기업 간 가치사슬 연계 강화에 기여
- **(위생검역)** 전산시스템 인프라 조성, 세관 규칙 및 절차 정보 공유를 통한 관련 검사 및 시간의 축소
- **(무역기술장벽)**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구, IT기기 등의 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구비 요건 요청 지양, 기술장벽위원회 설립

□ 산업계 반응

○ 일반적 평가 및 전망

- 칠레는 TPP 참여국과 FTA를 기 체결하고 있어 TPP를 통한 새로운 국익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제약산업협회(ASLFA)

- 약품 특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향후 의약품 가격인상에 따른 가계 및 정부의 비용부담 증가, 제약 산업 경쟁력 약화

○ 칠레 지적재산권협회(ACHIPI)

- 지재권 연장 등 보호 강화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분야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칠레기업의 혁신 마인드 및 창업정신 고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제조산업협회(SOFOFA)

- TPP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님. TPP를 통해 기존 쌍무적 FTA의 보완 등 통상여건의 개선 효과가 있어야함.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칠레 진출 전략**

○ **기 체결 FTA의 개선**

- 한-칠레 FTA는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으나 고도화 작업 필요
- 관세철폐 제외 및 고관세가 부과되는 냉장고, 타이어 등에 대한 추가 협상 필요
- 단, 칠레정부는 우리의 TPP 참여 문제와 양국 간 FTA의 심화 확대를 연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신중한 대처 필요
- 칠레는 DDA 타결 후로 협상 연기한 품목에 대해 조기협상 요구 중

○ **역내 생산연계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TPP 참여는 멕시코 등 우리의 FTA 미체결 국가에 대해 개선된 시장접근과 나아가 현지생산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칠레의 경우 동남아국가에 대한 양자 간 FTA를 확대하고 있어 베트남, 태국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칠레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이고도 다각적인 수출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년도 일본의 태국 내 생산 자동차의 칠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칠레와 동남아시아 국가 간 FTA 현황>

국 가	추진 단계	비 고
말레이시아	발 효	2012.4.1일부
베트남	발 효	2014.1.1일부
태 국	협상종료 및 협정체결	-
인도네시아	협상 중	-
인 도	- FTA 유사협정 발효 - 경협심화협정 협상종료, 협정 미체결	2007.8.17일부 -

## 9 캐나다

### □ 캐나다의 TPP 참여전략

#### ○ 참여목적

-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진출 및 기존 주요 통상파트너인 미주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심화
- 최근(14.9) 정식 서명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협상 진행 중인 일본과의 FTA 등과 병행하여,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TPP 활용
  - \* 한국과의 FTA 만으로는, 아·태지역 진출기반이 부족하다는 업계 우려를 일축하기 위한, 집권 보수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정 됨

#### ○ 참여 전략

- 농수산, 육류, 목재, 화학 등 캐나다 주력품목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협정참여 주요국가의 투자여건 개선과 다자간 투자보호 규정채택 등을 통해서, 캐나다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장치 강화
- 협정참여 주요국가로부터 투자유치(FDI) 확대 및 캐나다 기업의 역내 공급망(Supply Chain)참여 확대모색
- 서비스 등 경쟁력 부유분야, 캐나다 기업의 협정참여 국가진출 확대

### □ 쟁점사항

#### ○ (협상관련) 일본의 쌀,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수준

- \* 동 품목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협상 국가들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것임에 따라, 협상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을 우려
- 제품, 가공류, 계란 등 낙농 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공급(가격)조절 정책에 대해서, 향후 미국 등의 이의제기 가능성

- 미국의 대외무역 협정(법안)의 제때정 권한을 사실상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캐나다는 미 의회가 TPP 협상권을 행정부에게 이양해야,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입장임을 표명

- **(산업보호)** 유제품, 가금류 및 계란의 공급조절을 폐지해야 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쟁점으로 부각

- \* 정부는 현행 공급조절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일본 등의 민감 품목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정책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정부조달)** 미국이 최근 국산품 장려관련 법안(Made in USA Act, Invest in American Jobs Act)을 제정하면서,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한 데 대한 불만 고조

#### □ 산업계 반응

- 캐나다 농축산 업계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육류 및 농산품 보호주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방 노력을 촉구

- \* 캐나다 낙농업계는 기존 공급조절 정책폐지 우려

- 자동차부품 업계는 한국과 FTA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TPP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에 반대 입장

#### □ TPP 체결에 따른, 우리기업 활용방안

- 기 서명 한-캐나다 FTA 및 MOU(에너지자원, 산림, 기술협력 등)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캐나다 시장진출 확대추진

- 항공주, 의약, IT, 미디어 등 첨단교부가 산업분야, 인적기술 교류 확대, 글로벌시장 공동진출 등 협력강화

## 10 페루

### □ 페루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참여국간의 신규 FTA 협정체결 및 기 FTA 체결국과의 협정조건 개선
- 참여국과의 협상을 통해 주재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신규 어젠다 발굴
- 참여국가간의 최혜국 대우를 통한 시장다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고용창출 도모

#### ○ 참여 전략

- ‘12년 기준, 페루의 대 TPP 참여국가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32.3%를 차지하였으며 (285억 달러), 주요 품목으로 광물, 농수산물 및 섬유제품 등이 차지
-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확대
-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FTA 미체결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남미대륙의 최대 제조국인 브라질산 제품의 對태평양 국가로의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희망
- 참여국으로부터의 FDI 유치를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 및 고용창출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국가별 쟁점사항

- 전문가들은 TPP 체결이 페루 내 지적재산권, 제약분야 및 전자상거래 부문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참여국간 쟁점품목에 대해 양자협의 중이며, 관세환급, 수입허가 제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산업별 쟁점사항**

- 수산강국으로서, 아시아,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미-일간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TPP 참여를 통해 농수산물 보조금제가 폐지될 경우, 페루 내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어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전망
- 현재 페루 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제너릭이며, 이에 제약분야는 TPP를 통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제약분야,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페루 내 비공식부문의 축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복지비용 증가 등의 우려로 찬반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업종/품목별 산업계 반응**

○ **(제약산업협회)** 페루제약산업협회(ADIFAN)은 TPP 체결로 인하여 자국 제너릭 의약품 시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 하였음.

- 글로벌 제약회사의 진입으로 인한 제너릭 의약품 시장의 축소는 의약품 가격의 상승 및 결과적으로 중하위 소비계층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페루 내 6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21명은 TPP 협상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공개토론을 통한 협의 도출을 요구하는 등, 협상 체결에 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페루 진출 전략**

○ **중산층을 겨냥한 제품의 고급화 전략 구사 필요**

- 페루는 대표적인 시장개방형 국가로, 총 2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
- 이에 TPP (및 기체결 FTA)를 통해 독점적인 관세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기존의 수혜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진출 추진
- 현지 중산층 소비자의 증가 및 고급화 되어가는 소비성향을 고려하여,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면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

## 11 호주

### □ 호주의 TPP 참여 전략

#### ○ 참여 목적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호주는 이러한 경제기조를 반영하여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TPP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적극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호주의 주요 무역 대상국 10개국 중 5개국(일본,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이 TPP에 참여하고 있어 호주 정부는 TPP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한 호주는 TPP 참여국을 제조업 경쟁국으로 보기보다는 자국 제조업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한 원료 수급과 필요 공산품 수입처로 보고 저렴한 부분품이나 완성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TPP를 포함한 대외 무역협상을 통해 제조업보다는 낙농 및 식품,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음.

#### ○ 참여 전략

- TPP 참여 국가들과 호주의 교역 비중은 32.6%(2013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호주는 TPP 참여국들로부터 ① 공산품 가격 인하 ② 자국 낙농품 및 식품의 수출기회 확대 ③ 자국의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상품 교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아울러 ④ 호주 기업의 對 TPP 국가 투자에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에 집중하고 ⑤ TPP 참여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부수적인 전략도 내포하고 있음.
- 실제로 협상과정에 TPP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산업계는 농업단체, 축산업 단체, 서비스단체 등이 대부분이며 자동차, 기계 및 전기전자 등 일반 공산품 제조업계는 의견 제출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 노조만이 의견을 간헐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 TPP를 통해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참여국과 다른 목적중 하나임.
- 아직 TPP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TPP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을 TPP에 참여시킬 경우 중국의 여러 장벽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어, 중국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호주 중앙정부는 2008년 TPP 참여 결정 이후 외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산업 및 종사자들과 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계속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약 700회에 이르는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TPP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 종사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준비 중

##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 호주의 쟁점사항

- 호주는 ‘ 10년 제1차 공식 TPP회의가 멜버른에서 개최될 정도로 적극적인 TPP 참여 국가임. 다만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며 특정 산업별 현안보다는 산업 여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① 자국 투자자의 TPP 참여국 시장에서의 권익 보호 ② 지적재산권 보호(특히 저작권)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외에 호주는 TPP 참여국에 ③ 자국의 인프라 및 금융산업 진출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자국 금융산업 및 서비스 개방에 소극적인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아시아 참여국과의 협상에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특히 최근(7월 이후)들어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강력이 나서고 있음. 그간 호주 정부는 미국과 함께 TPP 협정안은 해적판의 상업적 이용이나

재정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고 권리 보유자가 권리 보유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이로서는 부족하다면서 명료성 강화를 희망해왔으나, 최근 호주 소비자단체와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권리 혹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서기 시작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 해적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판매·유통되는 서적이거나 테이프, 소프트웨어 등을 이르는 말

### ○ 산업별 쟁점사항

- TPP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광업, 농수산물 및 서비스 상품 분야이며 이들은 호주의 TPP 참여를 환영
- 제조업 종사자들은 탈제조업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제조업계의 우려가 호주의 TPP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음.

### ○ 분야별 쟁점사항

- 지적 재산을 포함한 금융·의료 서비스 산업과 농수산물 개방에 호주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해당분야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 조정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 호주는 공공조달 부분, 인프라 투자 부분을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상태이나 호주가 진출을 원하는 인프라 및 금융서비스 분야,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참가국의 개방 정도는 낮아 절충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산업계 반응

### ○ 수산업계(Seafood Trade Advisory Group)

- ‘14.4월 한국의 시장 개방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TPP 참여를 환영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

○ 수입업자 협회(Export Council of Australia)

- TPP 협상 기본적으로 환영
- ‘ 14.7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TPP 협정 주장
- 복잡하지 않은 원산지 기준의 필요성, 원산지 기준 입증에 용이해야 하며 필요시 무역업자가 입증 과정에서 독립된 제3자에게 증명서 입수 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강조

○ 낙농업협회(Dairy Australia)

- WTO에서의 자유무역 진전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TPP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 특히 농산물, 자원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가 호주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TPP에 ISDS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있음. 동시에 TPP가 더 확대되기 전에 호주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과 기진행하고 있는 FTA를 타결하고 발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육가공협회

- 호주는 쇠고기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석탄과 철광석등을 제외한 비광물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시장 확대에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육가공 협회에 따르면 육류 산업계는 FTA와 TPP를 모두 적극 지지하며 자유 무역이 호주 육가공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호주 상공회의소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견지를 따르고 있으므로 TPP에서도 동일한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지지
-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FTA와는 달리 TPP는 정부가 다소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TPP로 인해 중요 전략 파트너인 중국과의 FTA가 지장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호주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산업협회

-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 호주 화장품은 청정, 친환경,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아시아시장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호주 해당 제품이 TPP 국가(특히 아시아 참여국가)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TPP 과정에서 특히 국가 간 동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간 규정 통일/조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 소비자단체(CHOIC)

- 저작권 보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병행수입 제한할 경우 소비재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제안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도 관심이 많아 높은 수준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반대하고 있음.

□ TPP 발효 시 우리기업의 호주 진출 전략

- TPP 발효 시 호주가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육류 및 농업생산물의 대한 수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료, 가축용 항생제, 비료 등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됨.
- TPP가 발효될 경우 참여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주요 경쟁국중 하나인 일본이 TPP 참여국이어서 일본제품 대비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 호 FTA의 조속 비준/발효가 필요함
  - 기업차원에서는 시장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계를 타겟으로, 해당 시장에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우리 제품(예 ;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 주요 협상 쟁점 및 전망

#### ○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주요 장애물

- 일본은 현재 쌀, 소고기 및 돼지고기, 유제품 밀· 보리, 설탕 등 5가지의 민감 품목의 완전 시장개방을 꺼리고 있음
-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미· 일 양자협상에서 일본의 민간 품목 시장개방 기본 틀에 합의
  - \* 초민감품목 : 점진적 관세 인하, 민감품목 : 관세 인하 즉시 시행, 특정품목 : 개방 제외
- 미국이 소고기 및 돼지고기 산업에 대해 일본 시장개방을 우선 순위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쌀에 대해서는 양보 가능
- 미· 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기타 10개국과의 시장개방 협의도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어 내년 초 타결, 내년 말 발효 전망

#### ○ 미· 일 협상 독점에 대한 우려 제기

- TPP의 시초인 P4국가(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들은 미국과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TPP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낙농업 분야 협상 또한 미· 일 주도로 진행되어 세계 최대의 낙농업 수출국가인 뉴질랜드에 불리하게 적용해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함.

#### ○ 중국, 역내 경제 질서 주도권 재편을 위한 노력 박차

- 11.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였음.
- 같은 날인 11.10일 개최된 TPP 협상 전체 국가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된 반면,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

- **TPP 체결 시 우리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다양한 경제 수준의 TPP 국가들을 통한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생산비용이 국내보다 낮은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현재 FTA 체결 현황에 따라 유형별 생산연계 활용 모색 필요
- **일본과의 對미 수출 경쟁품목, TPP 역내국간 공급체계 선점 필요**
  - TPP 발효 시 일본과의 對미 수출 경쟁에서 한-미 FTA 효과 감소
  - 기타 TPP 국가들과의 공급체계 선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신흥국을 생산 및 마케팅 기지로 적극 활용**
  - TPP 발효 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역내에서 글로벌 시장접근이 가장 원활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해외시장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 추진 필요
  - 멕시코 등 완성품을 더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TPP 가입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여 생산기지로 활용
- **중산층을 겨냥한 제품의 고급화 전략 구사 필요**
  - TPP를 통해 독점적인 관세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진출국 중산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 전략 마련 필요



##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2014.6
14-020	남아공 대선과 산업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2014.6
14-021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2014.6
14-022	한-EU FTA 3주년 효과분석 및 성공사례	2014.6
14-023	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 방안	2014.6
14-024	미국 시장 핵심 소비계층 공략 방안	2014.6
14-025	한-EU FTA 및 국가브랜드 관련 유럽바이어 반응조사	2014.7
14-026	2014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7
14-027	2014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4.7
14-028	중동 EPC 기업 현황 및 협력방안	2014.7
14-029	미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통상 전략 분석 - 2014	2014.8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전망	
14-030	비세그라드를 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삼국지	2014.8
14-031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	2014.8
14-032	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2014.8
14-033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전략	2014.8
14-034	EU의 수입품 통제·관리 현황 및 시사점	2014.9
14-035	2014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0
14-037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둔화 요인과 시사점	2014.10
14-038	미 중간선거 결과 이후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2014.10
14-039	한일 교역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2014.10
14-040	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환경 변화와 KOTRA 대응전략	2014.11
14-041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2014.11
14-04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2014.11
14-043	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2014.12
14-044	미국 서부 물류대란 현황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2014.12

##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14-006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향후 전망	2014.11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2014.7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14-019	고객만족 실천가이드	2014.6
14-020	2014 U턴기업지원가이드	2014.7
14-021	2014 외국인투자가이드	2014.7
14-02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요약 번역본	2014.7
14-023	SEOUL FOOD 2014 결과보고서	2014.7
14-024	러 현지기업 실태 설문조사	2014.7
14-025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 (세계편)	2014.8
14-026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중권 (아시아 대양주편)	2014.8
14-027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 (중국편)	2014.8
14-028	벨라루스 투자실무가이드	2014.8
14-029	Invest KOREA 2013년도 연차보고서	2014.9
14-030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October 2014 Edition)	2014.9
14-031	2015년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국가 및 무역관별)	2014.10
14-032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CSR 요구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4.10
14-033	KOTRA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북	2014.10
14-03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종합 가이드북	2014.10
14-035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2014.11
14-036	중동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GUIDEBOOK	2014.11
14-037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2014.11
14-038	U턴기업 지원제도	2014.11
14-039	세계로 뻗는 우리기업 성공스토리	2014.11

14-040	2015 Guide to Living in Korea	2014.12
14-041	2015 韓國生活 가이드ブック	2014.12
14-042	2015 韓國 生活指南	2014.12
14-043	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 조사	2014.12
14-044	중동 산업다각화 보고서	2014.12
14-045	동유럽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12
14-046	2015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2014.12
14-047	[별권] 2014 ASEAN 주요국가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2014.12
14-049	2014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4.12
14-050	2014 외국인투자기업 디렉토리	2014.12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4.1
14-002	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4.1
14-004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1
14-005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	2014.3
14-006	韓中服務産業优秀企業投資交流會	2014.3
14-007	중국 개혁개방 2.0시대 -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4.3
14-008	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	2014.3
14-009	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	2014.4
14-010	(서울식품전 연계)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	2014.5
14-011	2014 Global Project Plaza	2014.5
14-012	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2014.5
14-013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	2014.5
14-014	2014 국제개발은행(MDB) 조달 설명회	2014.6
14-015	미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설명회	2014.6
14-016	Europe Business Week 2014 설명회	2014.6
14-017	중국시장 IP보호, 리스크와 기회	2014.6
14-018	한국투자환경 설명회	2014.7
14-019	제 16차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	2014.7

14-020	전문가가 알려주는 中 소비재시장 진출 체크포인트	2014.8
14-021	Korea - India Business Forum	2014.9
14-022	글로벌 통상포럼	2014.9
14-023	방글라데시 비즈니스 설명회	2014.9
14-024	MITSUI-NANO GAPS 사업설명회	2014.9
14-025	Global Development Fund Project Plaza	2014.9
14-026	Opportunities at Osong Bio-Valley	2014.9
14-027	Korea-Africa industry Cooperation Forum	2014.10
14-028	2014 유엔 조달 플라자	2014.10
14-029	Open Technologies In KOREA	2014.10
14-030	제11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2014.10
14-031	中韓相互合作的潛力産業IR	2014.10
14-032	Korea, your Gateway to China & Beyond	2014.10
14-033	한일 경제협력, 그 새로운 상생을 모색 -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즈음하여	2014.10
14-034	중국·베트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4.11
14-035	중동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설명회 발표자료집	2014.11
14-036	슬로바키아 투자진출 설명회	2014.11
14-037	2014 한·대만 산업협력포럼	2014.11
14-038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세미나	2014.11
14-039	CIS/Turkey-Europe Partnership Plaza	2014.11
14-040	엔저 이후 수출환경변화와 대응전략	2014.11
14-041	한-중동 산업다각화 협력포럼 - 중동 산업다각화 동향 및 유망제조설비 설명회	2014.11
14-042	'다문화 무역인 클럽' 취.창업 포럼	2014.11
14-043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7차 수요포럼	2014.12
14-044	2014 해외투자 성공전략 워크샵	2014.12
14-045	일반물자 정부간(GtoG) 거래제도 설명회	2014.12
14-046	2014 투자유망국 비교포럼	2014.12

## 작 성 자

◆ 워싱턴 무역관	이서호
◆ 오클랜드 무역관	최종진
◆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복덕규 차장
◆ 멕시코시티 무역관	성준화 과장
◆ 하노이 무역관	정상현 과장
◆ 싱가포르 무역관	신정호
◆ 도쿄 무역관	박은희 과장
◆ 산티아고 무역관	박성기 관장
◆ 토론토 무역관	이제혁 차장
◆ 리마 무역관	이정훈 과장
◆ 시드니 무역관	윤준기
◆ 통상지원총괄팀	오유진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4-045

## 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